

# 과학도서출판 육성 시급하다

과학기술의 정신적·문화적 의식의 개선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의 대중화도 국력의 신장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을 펴왔다.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종이매체인 도서출판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과학기술도서의 활성화나 출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었다. 하루속히 출판예산을 세우고 출판기금도 조성하여 과학기술도서출판을 활성화 해야겠다.



劉光鍾

〈(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도서출판 한국이공학사 대표〉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선진 과학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일류화, 전문화, 국제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산업현장과 학술연구분야에서 공동보조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기반없이는 국가도, 국력도 건설할 수가 없다는 인식에서이며 특히 현대국가의 운명이 전적으로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문화의 발전도 결국은 과학기술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80년대의 불황을 딛고 다시 거대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된 배경에는 대

학이나 각종 과학기술 연구단체에 정책적 지원을 우선함으로써 세계 제일의 국가를 건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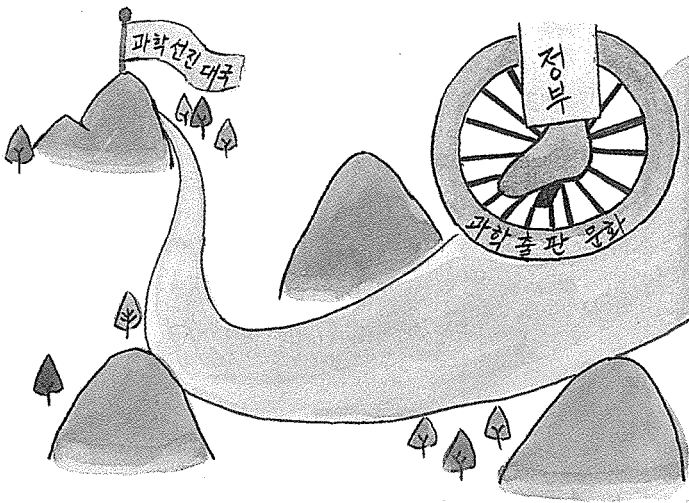
## 저조한 과학기술도서 출판

우리나라에서도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을 펼쳐온 지가 오래이다. 생활 과학화가 기술 혁신의 첩경인 이상 과학기술이 일부 과학자나 산업현장 기술진에게 국한되어진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함으로써 선진국가를 건설한다는 운동이다. 따라서 김영삼 전(前)대통령도 1997년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1997년을 '과학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신정부의 김대중대통령도 과총의 1998년도 과학기술인 신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질 좋고 값싼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

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 즉, 과학기술의 정신적·문화적인 의식의 개선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의 대중화도, 국력의 신장도 효과적일 수는 없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판이 사회·문화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출판 행위를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의 수익사업으로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회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사상,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모두 도서에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과학기술인의 저술을 국민들에게 접하게 하는 등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종이매체인 도서출판의 육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서의 출판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본(사)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의 회원이 1백여개 사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과학기술도서만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20~30여 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출판사는 종합출판으로 꾸러가면서 여력이 있을 때 기술도서를 몇 권씩 출간하는 실정이다. 새로운 젊은 신진 출판사들은 과학기술도서를 주로 출간하는 데 뜻을 두고자 하지 않고, 늘 10~20년 전 그 때 그 출판사들에 의해서 그나마 한국의 과학기술도서가 만들어지는 현실이다. 이는 곧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 수익성 없어 저술가도 꺼려

쉽고, 재미있고, 꼭 필요한 실용 도서를 만들고 싶어도 마땅한 저술가가 없고 저술가 역시 응분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술을 꺼리게 되고 출판사 또한 독자 확보가 어려우니까 책을 많이 인쇄할 수도 없는, 따라서 제작비도 건지지 못하는 악순환만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과학도서출판이 육성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과학화운동은 효과적일 수가 없다.

당국의 과학화운동은 어떠한가? 획일화된 매스컴을 통하여 일부 과학자나 산업현장 소개 아니면 원론적인 가치들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면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그룹에 편파된, 그리고 나머지 다수는 식상한 나머지 과학의 무관심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된다.

예컨대 수영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기초훈련과 기술이 접목된 선수여야

날로 발전하고 기록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수가 칠판에 글을 쓰고 지우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쉬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줌을 생각할 때 경제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출판문화의 영역이 이 칠판글씨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치 화면에 한 번 지나가는 사이버 강의와는 다르고, 칠판에 쓰고 지우는 시간과 공간 속 같은 긍정적인 묘한 심리를 유발시켜 건강한 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출판문화는 한 시대의 이미지를 창출시킴과 동시에 미래의 희망이고 가장 확실한 전파매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과학기술도서의 활성화나 출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혀 없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과기부 산하 단체의 출판관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비효율적인 행정체제는 과감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본 협회가 과학기술부 산하단체로 있으면서 하나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관심 밖의 대상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출판예산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술인으로 하여금 학문적 기반의 조성 위에 저술 의욕을 고양시키도록 하고, 출판인으로 하여금 과학기술도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도서를 영문판으로 번역출간하는 초록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외국인에게도 널리 읽게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대처하여야 한다.

### 출판예산 지원...기금 조성을

따라서 과학기술부는 출판기금 조성대책 및 우수과학기술도서 포상제도와 같은 우수 추천제도를 제정하고, 문화관광부에 속해 있는 공공도서관에도 과학기술도서를 일정량 비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항상 과학도서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본 협회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출판업계로 하여금 참신하고 체계적인 기획을 유도하고, 예산 부족으로 과학기술 출판을 포기하거나 미루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또한 우수 과학기술도서로 추천된 책은 당국의 출판기금으로 일정부수를 구입, 관공서나 산업체, 교도소, 학교 도서관에 배포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과학기술 출판의 활성화나 과학화운동은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전 국민의 과학화운동은 출판산업의 육성이 그 근원(根源)이다. 뿌리가 튼튼해야 이식을 하든, 접목을 하든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반 위에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